

주부 대상의 실용서 늘고 있다

육아도서 위주 탈피...여가활용 위한 다양한 전문서 쏟아져

주부 대상의 책이라면 으레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것을 생각하기 일쑤였는데, 최근 주부를 상대로 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실용서들이 쏟아져 나와 광범한 주부독자층을 끌어모으고 있다.

요리관계 가장 많아... 식생활 다변화 반영

현재 서점가에 나와 있는 주부도서로는 육아관계가 약 430종, 건강·교양물이 각 100종, 요리 시리즈 120종, 집안가꾸기 30종, 꽃꽂이 25종, 손뜨개 80종 등 모두 800여종을 헤아린다. 이 중에서 임신·출산을 포함한 육아도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책은 87년 이후에 발행된 것들이다.

백과사전식의 두꺼운 책들이 주종을 이루었던 요리부문의 경우, 88년 이후 단행본과 카드 위주의 간편한 책들이 간행되고 있다. 카드요리시리즈는 주부생활사, 중앙라이프, 삼성출판사 등에서 나왔는데, 휴대용으로 되어 있어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동양요리로부터 서양요리, 채소부터 생선·고기요리까지 다양한 종류가 선보여 식생활의 다변화를 말해주고 있다.

단행본도 「한국요리」(한정혜, 정우문화사), 「가정요리」(), 「한국음식」(黃慧性, 민서출판사), 「식단과 반찬 365일」(주부생활 편), 「양주와 카테일」 등 10여종이 나와 있다. 특히 양주와 카테일에 관한 책은 세화·성안당·선영사·기문사·세진사·경세문화 등에서 퍼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모두 가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부터 보다 전문적인 기술까지 다루고 있다.

요리도서는 이와 같이 주부실용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분야인데, 또 그만큼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 서점관계자들의 말이다. 전문가들은 그 배경에 대해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식생활의 변화' 외에 '전통적 주부문화의 단절'을 들고 있다. "핵가족화로 인해, 시어머니에게 요리를 배우던 주부들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요리와 건강에 비해 그 종류에 있어서 더욱 다양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훨씬 전문화되고 있는 분야는 인테리어, 꽃꽂이, 공예, 손뜨개 등 순수실용서.

인테리어 분야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것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점차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향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구체적인 인테리어를 다룬 책은 「부엌



교보문고의 여성실용서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주부들.

인테리어」「어린이 방」「POP 인테리어」「거실 인테리어 144」「수납 인테리어 144」 등 10여종에 이른다.

원예·분재·꽃꽂이에 관한 책은 비교적 오래 전부터 인기를 끌었던 분야이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특히 분재의 경우 올해에 출간된 것만 해도 「최신 분재」(차권성, 오성출판사), 「분재전과」(김영식, 내외출판사), 「분재 가꾸기」(김세원, 화서출판사), 「분재 입문서」(가야출판사)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손뜨개에 관한 책도 비교적 전통적이라 할 수 있지만, 88년 이후의 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부실용서 중 주목할만한 분야는 지점토공예. 87년 이전에는 거의 불모지였던 것이 현재는 무려 20종에 이르러 바야흐로 '지점토풍년'을 맞이하고 있다. 민서출판사에서는 「지점토인형」 「벽걸이인형과 릴리프」 「민속지점토」(박정숙 엮음) 「점토바구니」 「점토공예」 등을 내놓았고, 로얄사에서는 「지점토」 ①~③시리즈를 올해 발간했다. 태학원에서도 「지점토인형의 신기법」 「지점토로 만드는 맛있는 소품들」 「지점토로 만드는 벽장식인형」 「귀여운 인형들」 등의 일본서적을 번역출판했다.

이밖에도 현재는 활발하지 않지만, 등공예·가죽공예·왕골공예·수직공예·칠보공예·색지공예 등의 서적도 앞으로 활발하게 출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주부대상의 책들이 늘어남에 따라 대형서점들은 '여성실용서' 코너를 따로 설치해놓고 있는데, 교보문고의 정석희 홍보과

장은 주부실용서 증가의 원인을 '주부 여가의 확대'와 '주부 독자의 증가'에서 찾는다. "책 읽는 주부들이 늘어난 것은 고학력주부가 급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부들은 여성실용서코너 뿐 아니라 철학·사회학·역사학 등 인문사회과학의 전문서코너도 자주 찾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지나친 소비·향락문화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을 읽는 주부들과 주부 대상의 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엇비슷한 책이 너무 많아 주부들에게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기기도 한다는 것. 서점에서 책을 고르던 주부 서수야씨(35·방배동)는 "같은 책이 너무 많아 어떤 책을 고를지 모르겠다"며 "출판사별로 특색있는 책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표시한다.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주부실용서의 경우 거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점에서, 알맞은 책을 고르는 것은 결국 독자들의 몫이 아닐 수 없다.

—차창용 기자

한국잡지 창간호 93년展 열어

한국학연구소, '잡지문헌전'도 계획

한국학연구소(소장 金根洙)가 마련한 '한국잡지 창간호 93년展'이 지난 5월10일부터 20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리빙관 이벤트홀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에는 1896년 2월15일 대조선일본유학생친목회가 창간한 「친목회회보」(계간)를 시작으로 1989년 2월까지 만93년 동안에 발간된 잡지 1,000여종의 창간호(속간호·복간호·개재호 포함)가 전시돼, 우리나라 잡지의 발전사를 한눈에 펼쳐 보였다.

이번에 출품된 잡지 창간호 중에는 드물게 보는 것들이 많다. 萬海가 발간한 「惟心」(1918)을 비롯, 일제 때 중국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倍達公論」(1923), 종합과학잡지 「白頭山」(1930), 해방직후 좌우의 흐름에서 중도적 입장을 취했던 종합지 「大潮」(1946), 조선과학자 동맹의 기관지 「科學戰線」(1946), 좌우익의 공동광장이던 「新世



代」(1946), 조선사연구회의 기관지 「史海」(1948) 등등은 특히 눈길을 끌었다.

동 연구소는 전시회가 끝나는데로 이번에 출품된 잡지의 열람을 개방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6월14일 연구소창립 16주년에 즈음해 한국잡지관계 문헌자료전시회도 가질 예정. 연락처는 762-6991.